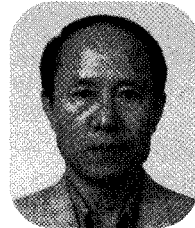


2005년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정 규 성 소장
축산유통연구소

2003년 장기간의 불황으로 어려움이 컸던 국내 양돈산업은 2004년 들어서며 미국산 쇠고기의 BSE발생과 조류독감으로 인한 소비대체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쳐 상반기 내내 상승, 조정 후 재상승 과정을 거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더구나 3P로 대변되는 돼지 질병여파와 흑서로 인한 출하물량 부족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 물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조정국면을 수반하는 고돈가 행진이 이어졌고, 이러한 흐름은 2005년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중경기 위축세 심화에 따른 소비추이와 사육동향이 크게 변수로 작용될 것 같다.

1. 돼지고기 사육동향 및 전망

가축통계자료에 의하면 '04년 9월의 돼지 총사육두수는 904만6천두로 전년동기대비 241천두,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향후 사육두수 변화에 기준이 되는 모돈수는 93만8천두로 전년동기대비 50천두, 5.1%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도의 돈가 강세에도 이러한 사육두수 감소세를 보인 요인은 돼

지 질병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과 하절기의 폭염피해, 사료가격 인상과 양돈 주변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규모 양돈농가들의 폐업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04년 9월 904만6천두로 조사된 돼지 총사육두수는 모든 감소영향으로 '04년 12월에는 전년보다 3.3% 정도 감소한 893만두로 '05년 3월에는 880만두 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05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감소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비중을 높이고 있어 향방이 주목될 듯하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양돈업으로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기존 양돈농가들도 축산분뇨, 악취방지 등 환경관련 법규강화 등으로 예전과 같은 돈가 상승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의 욕이 크게 감퇴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으나, 고돈가 기조지속에 대한 기대감, 사료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제고, 양돈관련 질병 방역효과 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05년 하반기에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04년말 수준

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을 예상케 하지만 질병과 기후여건 등이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2. 돼지고기 수급전망

'0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돼지 도축두수는 1,197만여두로 전년동기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말까지의 도축물량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04년도의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은 '03년보다 4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돈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세를 보인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04년 10월 누계가 8만9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0.7%가 증가하였고, 연말까지는 1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04년 돈육소비는 타축종 질병영향에 따른 소비대체가 증가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영향으로 전년보다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시중경기 침체 지속과 고돈가 영향으로 하반기 중반 이후에는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05년도의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물량은 상반기 중에는 사육두수 감소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사육두수 증가영향으로 질병영향과 흑서로 인한 피해가 컸던 '04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05년도에는 국내 돈육가격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돈육 물량 증가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제 돈가상승과 물량 확보의 한계성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러시아, 중국 등의 물량 구매확대, 동유럽권의 양돈산업 쇠퇴로 인한 유럽산 돈가 강세지속 예상 등으로 미국산 역시 생산량 증가 속에서도 물

량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고현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갖춰지면 국내 돈가 상승으로 원료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소들부터 수입물량 확보노력이 가시화 될 것도 예상되고 있어 국내 돈가 및 국제 돈가 흐름에 따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05년도 돈육 수입물량은 '04년대비 20~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5년도의 돼지고기 수요는 타축종 질병발생으로 인한 대체효과 둔화와 고돈가 영향으로 '04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도 역시 경기부진과 고돈가 영향으로 전년수준 정도 유지가 예상된다.

3. 가격전망

수급전망도 어렵지만 가격전망은 더 많은 변수가 내재하고 있어, 돼지 가격전망은 주가 예측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05년도에도 상반기 강세, 하절기 이후 약세로 전환 패턴이 유효할 듯하며, 상반기 강세폭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하물량 부족세 심화로 상반기 중에 사상 최고가 갱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고돈가로 인한 소비 위축세와 부위별 소비패턴 변화, 수입물량 증가세, 소비대체효과 둔화 등도 돈가형성에 영향력이 적지 않을 듯하다.

냉장 인기부위 수급에 민감한 불안정한 돈가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생체 100kg기준 23~26만원대, 하반기에는 21~23만원대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경기 추이는 물론이고 질병영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도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양돈**